
- 선진도시 우수사례 Bench-Marking 을 위한 -

서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seo.incheon.kr>

목 차

I. 연 수 개 요	1
1. 목 적	1
2. 기 간	1
3. 방문도시 및 기관	1
4. 시찰단 구성	2
5. 일정 및 내용	2
II. 방문국가별 시찰내용	3
1.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3
2. 공공자전거(Velib)시스템	16
3. 라데팡스(La Defense)	20
4. 노인주거복지시설(AREPA)	25
5. 베네치아 운하(Venezia)	28
6. 협동조합(IPERCOOP)	32
III. 연구과제 및 제안	39
IV. 시사점 및 향후과제	45

서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 ❖ 해외 선진국의 성공적인 정책사례에 대한 시찰을 통하여 우리구의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발전하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 ❖ 일자리창출 방안, 노인복지 정책, 균형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 연수개요

1 목 적

- 우리구의 중점목표인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정책, 균형적인 도시 개발의 선진도시를 해외시찰 대상지로 선정하여
- 해외연수를 통한 현지 체험으로 견문확대와 국제화 마인드 제고
- 우수정책에 대한 Bench-marking으로 우리구의 앞으로의 정책방향 의견 제시 및 접목

2 기 간

- 2014. 11. 12 ~ 11. 19 (6박 8일)

3 방문도시 및 기관

국 가	도 시	방문지역(기관)
프 랑 스	파 리	라데팡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노인요양시설(AREPA) 등
이탈리아	로 마	베네치아운하, 로마협동조합 등

4 시찰단

○ 구성인원 : 총 11명 (의원 8명, 사무국 직원 3명)

직 위	성 명	영문성명	비 고
의 장	이종민	JONGMIN LEE	단 장
위원장	박형렬	HYUNGYUL PARK	
부위원장	이의상	EUISANG LEE	
의 원	천성주	SUNGJOO CHUN	
의 원	박삼숙	SAMSOOK PARK	
의 원	김윤순	YUNSOON KIM	
의 원	이용창	YONGCHANG LEE	
의 원	전옥자	OKJA JUN	
사무국장	조일현	ILLHYEON CHO	총괄인솔
의정팀장	이석원	SEOKWON LEE	자료수집
직 원	김현경	HYUNKYUNG KIM	자료수집

5 일정 및 시찰내용

방문일정	11.12 ~ 11.14	11.15 ~ 11.17
방 문 국	프 랑 스	이탈리아
방문도시	파 리	로마, 베네치아 등
방문기관 (지역)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Commission National Debate Public) ○ 벨리브 자전거 시스템 ○ 라데팡스(La Defence) ○ 노인요양시설(AR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네치아 운하 (Venezia Canal) ○ 이탈리아 협동조합 (IPERCOOP)

2. 임무

○ CNDP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지거나, **환경 또는 국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토개발사업 및 설비사업의 전반 감독**

- 공공토론을 통해 사업의 목적, 적정성, 특징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공중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진행 도모

※ 사업기획단계(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종결 단계까지, 사업 전과정에 걸쳐 대중 참여 보장

○ CNDP는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사업결과의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토론을 조직 운영

※ CNDP는 대중 참여를 통한 집단의사의 공론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CNDP의 최종의견은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을 가지는(binding) 결정이 아니며, 권고사항의 수용 여부는 사업자가 최종 결정

3. 법적 기반

○ 「**바르니에 법**」 (Loi Barnier, 1995년 제정)

- 프랑스 행정법으로는 처음으로 **공공토론 형태의 대중 참여 원칙** 천명

- 국익과 관련된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을 결정하기 전 대중의 의사를 수렴하여 심의과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입법의지 천명

- 개발사업 결정 이전에 시행하는 주민 자문과 시민단체 자문에 관한 집행명령 제96-388호' (1996년 5월 10일 제정)
 - 국익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기획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공공토론 방식 도입
 - 도미니크 부와네(Dominique VOYNET) 국토개발·환경부 장관 재임시절인 1997년 9월 4일, CNDP 창설

-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법 제2002-276호 (2002년 2월 27일 제정)
 - 동법 제134조는 '환경이나 국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나 설비사업 기획시 대중참여' 관련 조항 포함 (환경법 L.121-1 ~ L.121-15)
 - 참여원칙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는 한편, CNDP의 법적 지위를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권한 범위 확대
 - 2002년 10월 22일 개정함으로써 공공토론의 구체적인 개최 방식 절차 규정

4. 법적 지위

- **프랑스 독립행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주요 부문의 관리 담당
 - 프랑스 행정 전통과는 달리 특정 장관의 계서제적(hierarchical) 지배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함
 - 정부의 명령이나 지시, 조언으로부터 자율적이다.

※ CNDP 위원들의 해임은 사실상 불가, 5년의 임기 보장

- 프랑스 독립행정기관은 경제활동 관리를 맡는 기관과 시민권을 보호하는 기관의 2개 범주로 대별. 중앙은행 등의 경제기관이 전자의 경우라면 CNDP는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기관임.

5. 기관 구성

○ 대통령령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등 위원 25인** 임명

- 상.하원의장 추천 의원 각 1명
- 지방의회 추천 의원 6명
- 참사원장 추천 (Conseil d'Etat) 1명
- 대법원장 추천 대법관 1명
- 지방법원 추천 판사 1명
- 회계감사원 추천 감사 1명
- 행정법원 또는 행정항소법원 추천 판사 1명
- 전국적 규모의 환경보호단체 대표 2명
-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 단체 대표 1명
- 교통물류 단체 대표 2명
- 갈등관리 전문가 2명
- 노동문제 전문가 2명
- 관료 2명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소정의 보수 받음.

기타 위원들에게는 수당 지급

※ 환경법 L.121-5조는 CNDP 위원들과 CPDP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연관된 사업 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토론 또는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

- 사무국 : 국토부 감독관이 이끄는 6인의 행정팀으로 구성
- 예산 : 2004년 1월 1일 이래 고유 예산 편성 및 집행
 - 환경. 지속가능 개발부 예산에 산입 편성
 - 2014년도 예산(추정) : 190만 유로 (약 28억원)

② CNDP 운영절차 및 사례

1. CNDP 소집대상 사업 및 기준

- 소집대상 사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도 공공토론의 대상
 - CNDP의 소집 대상 사업을 판정하기 위해 3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 공공토론 개최 방식을 규정
- ① 높은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 : 환경 또는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선택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사업
 - ⇒ 공공토론 절차를 의무적으로 가동
- ② 높은 기준과 낮은 기준 사이의 사업
 - ⇒ 5개 행위자 집단이 소집권을 공유
- ③ 낮은 기준 이하의 사업 : 환경 또는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일반적 주민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
 - ⇒ 환경부장관은 유관부처 장관과 함께 환경 또는 국토개발에 관련된 일반적 주민선택권에 관한 공공토론을 개최할 목적으로 CNDP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보유

2. 공공토론 조직 및 운영 절차

○ CNDP는

- 1) CNDP가 직접 관장하는 공공토론 (공공토론특별위원회, 이하 CPDP 구성),
- 2) 사업자(또는 사업발주자)에게 위임하는 공공 토론
- 3) 공공토론 개최 없이 사업자(또는 사업책임자)에게 조정 권고하는 3가지 수준의 공공토론 조직

① CNDP가 직접 관장하는 공공토론(CPDP 구성)

- CNDP가 공공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개최할 필요가 있는 중대성이 있다고 평가할 경우 3~7인으로 구성된 국가 CPDP에 공공토론의 진행 위임
 - ※ CPDP가 실질적인 공공토론 조직 및 운영
 - CNDP는 공공토론 개최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CPDP 위원장을 임명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 책임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공공토론에 부칠 사업 자료를 제출
 - 이 자료는 대중열람용으로 CNDP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CPDP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료의 추가 보완 요청 가능
 - 토론 자료가 공공토론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갖춰졌다고 여겨지면 CNDP는 이를 수리하고 공공토론 개시일과 일정 공고
- 공공토론은 통상 4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CNDP가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지난 10여년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CPDP가 조직.운영하는 공공토론(public debate)은 평균 20회에서 40회 개최
- 공공토론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CPDP 위원장은 공공토론 보고서를 작성, CNDP 위원장은 공공토론에 대한 종합평가서 작성
 - 토론보고서와 종합평가서는 모두 공개
 - CNDP의 보고서와 CPDP의 종합평가 공개일은 사업자 측에 관련 문서를 발송하는 날짜와 동일,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토론 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문서 전달
 - 위 두 경우 모두 CNDP가 보고서와 종합평가를 공개해야 하므로 CNDP 인터넷 사이트에 이 두 가지 문서 동시 게재
- 사업자 또는 사업 책임자는 공공토론 종합보고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추진 원칙과 조건을 문서를 통해 결정하여 발표
 - 이 경우 동 문서는 공공토론을 거치게 되는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
- 공공토론 개최 비용은 사업자나 사업 책임자가 부담하되, 전문가 자문 비용 및 CPDP 위원들의 보수는 CNDP가 부담
- CNDP와 CPDP 위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 일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며 사업기획 단계에서 대중 참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살피는 역할만을 함

② 사업자(또는 사업발주자)에게 위임하는 공공토론

- CNDP가 사업자 또는 사업 책임자에게 공공토론의 개최를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공공토론 개최 방식과 일정에 관한 내용을 제안
 - 최대 6개월 이내에 공공토론의 대상이 되는 사업관련 자료를 CNDP에 제출
 - 이 문서는 대중열람용으로서 CNDP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CNDP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완
 - CNDP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공공토론 자료가 접수되면 CNDP는 최대 2개월 이내에 공공토론 소집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개시일과 개최방식에 관한 의견을 4개월 내에 표명
 - 사업자 또는 사업 책임자는 공공토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공 토론보고서를 작성하고, CNDP 위원장은 공공토론 종합평가서를 작성
 - 토론보고서와 종합평가서는 공개, 인터넷 사이트에 동시 게재
- 사업자 또는 사업 책임자가 공공토론 종합보고 발표일 이후 3개월내에 사업 추진의 원칙과 조건을 문서를 통해 결정하여 발표
 - 동 문서는 사업 내용의 주요 변경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
- 공공토론 개최 관련 비용은 사업자나 사업 책임자가 부담
 - CNDP는 사업 내용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며 사업 기획 단계에서 대중 참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살피는 역할만 수행

③ 공공토론 개최 없이 사업자(또는 사업책임자)에게 조정권고

- CNDP가 직접 공공토론을 개최할 만큼 중대한 사안도 아니고, 사업자 또는 사업발주자에게 토론을 위임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CNDP는 사업(책임)자에게 조정을 권고
 - 즉, 사업의 특성 등을 기초로 판단해 공공토론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주민공고나 주민들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NDP가 제안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책임)자에게 주민들과의 조정을 시행하도록 권고
 - CNDP가 권고하는 조정은 독립적 협의조정자를 임명하여 합의형성을 시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의 조정을 포함
- 현행법은 사업추진자에게 독립적 조정자 위촉의 책임 부여
 -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자는 협의조정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1인 또는 다수의 독립적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CNDP 측에 요청
- 협의조정자는 CNDP나 CPDP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해서는 안 되는 의무 부과
 - 즉, 독립적 조정자는 주민열람 과정에서 성실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민의사표현을 용이하게 하며, 주민질의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 수준과 질을 감독하는 역할 수행
-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협의조정자는 감독임무에 국한되지 않고 조정개최 및 진행과 같은 더 적극적 임무까지 수행 가능
- 조정이 끝나면 사업자 또는 사업책임자는 CNDP 측에 조정 보고서를 전달하고, CNDP는 조정 소집 이후 2개월 내에 결정내용을 관보에 게재

- 조정기간 동안 CNDP는 해당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결정 과정에서 대중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역할 수행

③ CNDP 성과 및 평가

1. 운영성과

- 2001-2009 기간 동안 총 85건의 안건상정
 - 총 85건 중 40건에 대하여 CPDP 구성, 공공토론 진행
- 프랑스 공공토론의 제1분야는 도로건설 및 고속도로 건설 또는 확장사업 등 교통 분야
- 최근 들어 공공토론 분야가 확장되어, 항만 인프라 건설 및 확장 사업, 전선·가스관·산업설비 설치사업 등으로 다양화
- CNDP의 자문 및 의견제출, 권고 등의 부가적 임무 역시 다양화되어 나노기술개발 및 규제 관련 분야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

2. 평 가

① 특성

-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는 캐나다 퀘벡주의 캐나다 공공의견 청취국(Bureau Canadien des Audiences Publiques: BAPE)을 모델로 프랑스 정치·행정 맥락에 맞게 수정한 모형
 - 현재 이탈리아가 프랑스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활용중임.
 - 중국, 일본 등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과정에 대중참여 방식 도입을 고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문 수행

- 갈등의 해결보다 예방을 지향하며 프랑스 정치.행정 맥락에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미국식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차용한 것이 특징
 - 프랑스의 전통적인 분쟁해결 제도는 의회주의
 - 프랑스 사회에서 안전판으로 기능하는 정치적 타협과 거래의 의회주의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반성에서 속의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차용
 - 갈등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갈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적다는 점에 주목
 - 현재까지 소정의 성과를 거두며 적지 않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

② 긍정적 평가

- 전통적인 행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중참여를 통한 집단적 의견의 수렴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선구적 제도라는 긍정적 의견 대두
 - 공공토론은 시민사회의 참여과정에서 학습의 기능을 수행, 집단 지능을 개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
 -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street-level) 의사결정 형태로서 시민의 욕구와 필요에 밀착하여 부응할 수 있는 근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보조적 장치로 기능
- '주제별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 토론'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부 정책방향 설계시 참고

- 피상적이고 유동적인 의견수렴에 그치는 여론조사와 달리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집단의 의사를 결집하고 반영하는 속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상을 구현

○ 전통적인 일방향적 홍보에서 쌍방향적 소통으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방폐장 건설 등과 같은 복잡한 갈등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선례를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근접성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의견

- CNDP 소집의뢰의 77%의 사안에 대해 공공토론(51%) 또는 조정(26%) 형태로 주민 참여를 보장
- 소집 2건 중 1건은 공공토론 개최로 이어졌으며 이 중 91%는 공공토론위원회가, 9%는 사업자가 토론 개최
- 특히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사업 (일반적 주민선택권)과 관련된 소집 건수를 살펴보면 3건당 1건에 대해 공공토론 개최
- 개발 및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개최된 공공토론이 신기술의 안정성 검토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은 공공토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반영

③ 부정적 평가

- 행정부 내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공론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는 비판
- CNDP가 조직하는 공공토론 또는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론화 및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 과정
- 공공토론 이후에 결집된 대중의 의사가 행정부의 결정과 상반될 경우에도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강제력 결여
- 사업계획 철회 또는 수정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존

-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양립 불가능한 변종 민주주의 제도이며 행정의 집행속도만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회의적 시각
 - 속의 민주주의 또는 근접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

- 전문성이 결여된 대중의 의견이나 권고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한다는 회의적 시각
 - 대중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나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기반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사업자가 독점
 -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대중 참여가 형식화될 우려

- 공공토론의 활성화를 추동하기보다 여론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

□ 현장방문 사진



위원장 브리핑 및 면담



국기공공토론위원회 앞

② 프랑스(파리) 공공자전거 (Velib) 시스템

① 정책목표

- 2016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15% 증대(현재: 9%)

②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 도심지 자동차 통행속도 제한(50km/h) 및 일방통행로 확대
- 도로 다이어트에 의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재 370km)
- 공공자전거(Velib) 활성화 정책 및 확대
 - 도로계획 반영
 - ⇒ 차로축소, 교통섬, 자전거 차로 확보



- 각종 자전거 활성화 캠페인 운동 실시
 - ⇒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세상으로 전환 운동
- 공공자전거 활성화 추진 배경
 - 대중교통 수단과 공공 자전거 연계 상호 보완 효율성 증대
 - ⇒ 유연한 이동 수단(Mobility)
 - ⇒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용하기가 편리함(Accessibility)
 - ⇒ 무 탄소 친환경적 교통수단 (Environmental Friendly)
 - ⇒ 건강 증진(Health) + 경제적(Economic)
 - 주거지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의 대안 공공자전거

3 파리의 공공자전거(Velib) 시스템

○ 도입배경

- 가장 가깝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보완
- ⇒ 통근(통학)의 최고의 시설
- ⇒ 도심에서 가장 빠르고 실용적인 교통수단
- ⇒ 근거리 교통을 위한 가장 좋은 교통수단

○ 공공자전거 구조(성) 및 형태



- 외장형 기어변속기를 사용하기 않음
- 우천시 안전성을 위해 디스크브레이크 설치
- 이동시 후미등 작동 및 케이블 내장형(프레임속) 구성
- 허브형 발전기 내장 등
- ⇒ 도시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편안함,간편한,안전함)

○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

- 이 름 : **Velib**(자전거 Velib + 자유 liberte)
- 도 입 : 2007년 7월
- 규 모 : 20,600대의 공공자전거와 1,451개 스테이션
- 사업비 : 1억 4,200만달러(약2,000억원)

- 운영 : JCDecaux(광고회사)와 10년 계약
- 이용방법
 - 웹사이트 가입 회원제(1일: 1유로, 1주일: 5유로, 1년: 29유로)
 - 스테이션에서 카드로 자전거 출고 도착지 스테이션에 반납
- 이용요금
 - 30분간은 무료 · 31분~1시간 : 1유로(30분 단위로 할증)
 - 24시간 미반납시(도난시) 150유로

○ 도입효과

- 연회원 245,000명(파리 시민의 10%)
- 하루 최고 200,000회 운행, 일평균 75,000회 이용(2013년)
- 연간 이용율 68% 증가(신규 고용창출 400명: 유지관리)
⇒ 파리시내 운행중인 자전거의 33% 차지
- 이용 형태 : 통근/통학 44%, 쇼핑 22%, 여가활동 26%

○ 벨리브의 5가지 성공요인

- 모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낮은 요금, 처음 30분간은 무료로 이용
- 쉬운 사용방법 : 간단함, 신용카드 사용 등
- 네트워크 밀도 : 밀집성, 연속성 스테이션 300m 간격
- 장비의 질 : 인간중심, 튼튼함
- 양질의 서비스 : 유지관리, 고객센터 등

【 프랑스(파리)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



자전거 전용도로(연석으로 분리)



횡단보도앞 자전거 대기소



자전거 전용도로(연석 등으로 분리)



버스 전용차로와의 병행 자전거차로



자전거도로 안내 표지판



자전거 도로 및 표지판



공공자전거(벨리브) 스테이션



공공자전거(벨리브) 스테이션

③ 라데팡스 (La Defense)

① 라데팡스 일반현황

- 인 구 : 약 2만명
- 면 적 : 227만평 (업무, 주거, 공원)
- 행정구역 : 오-드-세느의 뇌이 시(Neuilly-sur-Seine)
- 1일 유동인구 : 100만명
- 1일 업무인구 : 16만명
- 지역특성
 - 업무, 상업, 주거, 공원이 함께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도시
 - 도로망 및 주차장 등의 지하화

② 혁신 비즈니스지역의 개발

- 개발계획
 - 1930년 : 파리 근교에 위치한 프랑스 최대의 빈민지역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대두됨.
 - 1947년 :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정부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됨.
 - 1958년 : 라데팡스 개발청 설립(개발국 등 7개부서)
 - 당초계획은 1990년대 대부분 완료 되었으나, 추후 주변지역에 대한 주거시설 확충 등 개발계획을 확장하여 추진하고 있음.
- 개발방향 및 특성
 - 라데팡스는 보불전쟁 당시 파리의 최후 방어선으로 프랑스군의 주둔지였던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파리시내 변두리인 오드센 지역에 위치한 빈민가였음.

- 도시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족도시로 육성위하여 개발초기에는 급증하는 파리시의 인구와 가속화 되는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도심으로 조성하였으나,
- 현재는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핵심센터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지역을 중심으로 1,600여개의 기업의 본사나 지사가 위치하고 있음
 - * 총면적 : 227만평(업무 49만평, 주거 151만평, 공원 27만평)
- 또한, 보행자 도로와 차도의 완전한 분리로 안전성 확보하고자 인공지반(Deck)을 도입함과 동시에 다층 구조에 의한 교통축을 구성함으로써 보행과 자동차의 입체분리가 잘되어 있으며,
- 라데팡스 중앙 통로에는 지하철,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을 집중시켜 각 건물의 진출입구로부터 각 구역별 주요 접근로에 이르기까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시구조 지상에는 상업지구 및 주거지역, 지하1층은 고속도로 및 버스승강장, 지하2층은 지하철, 지하3층은 국철, 지하4층에는 지하 기반시설이 위치해 있음.

③ 주요 건축물

○ 신 개선문(La Grande Arc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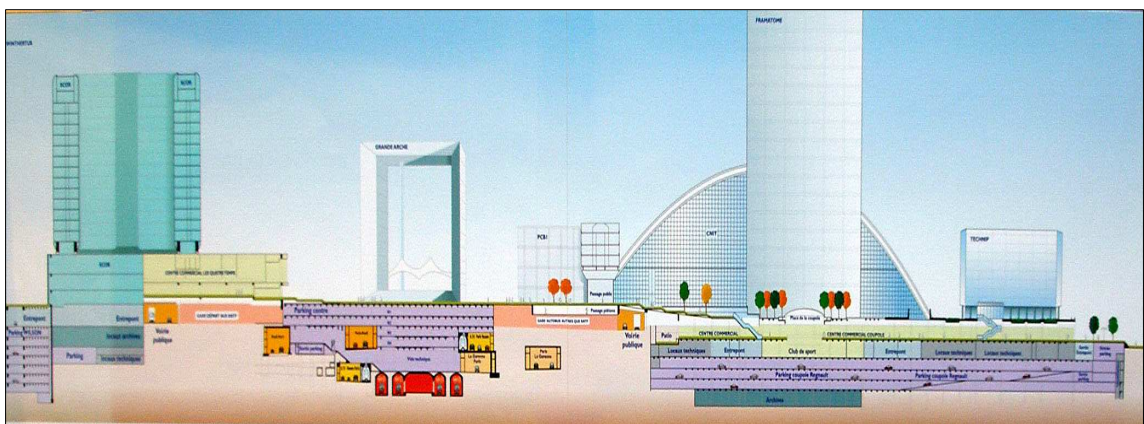
-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공모전을 통하여 당선된 덴마크 건축가 “스프레켈센”의 작품으로 높이 105m, 안쪽길이 70m, 36층의 건축물로 전시장과 업무시설 등이 입주해 있으며, 유럽 정상회담 장소로 쓰인 제2의 개선문이라도 함.
- 특이한 점은 작품공모 시에 출품자의 인적사항이 없이 작품만 출품 받아 심사완료 후에 당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음.

○ CNIT (프랑스 국립산업기술센터)

- CNIT의 건립은 유럽 최대의 비즈니스 지구인 프랑스 '라데팡스'의 탄생과 함께한다. 1930년대부터 구상되었던 '라데팡스' 설립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의 맨해튼 건설계획'이란 이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건설은 1956년 9월에 시작되어 2년 후 1958년 9월에 마무리 되었다.
- 컨벤션 센터와 쇼핑몰 등이 집중되어 있는 라데팡스에 최초로 세워진 건물로 조개껍데기를 엮어 놓은 듯한 셸 형태로 건물 기둥사이의 거리가 238m, 지붕길이 128m, 높이 47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콘크리트 골조프레임으로 유명함.
- 현재 CNIT에는 '힐튼호텔', '에어프랑스', '프낙'(Fnac)과 같은 40여개의 기업들이 입점해 있고, 국제 회의실 및 전시장, 호텔, 쇼핑몰로도 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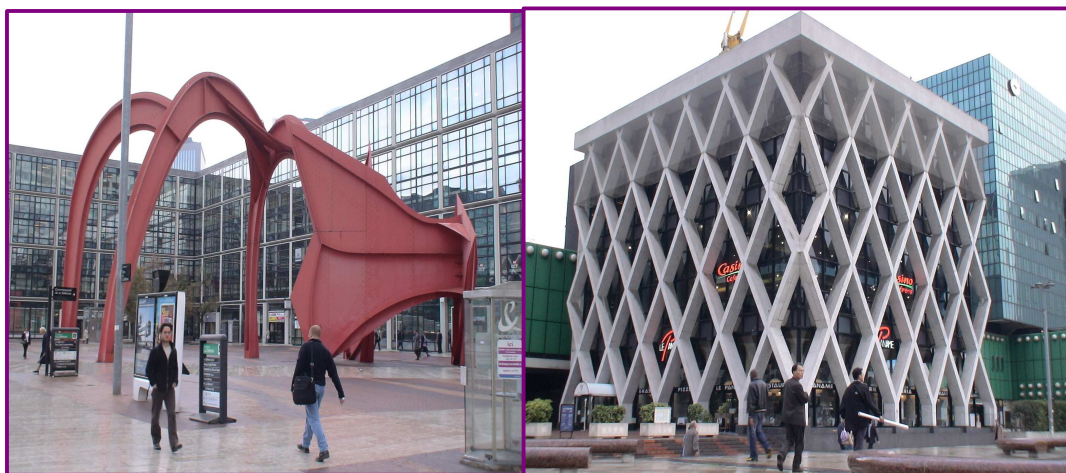
4 주요 시찰내용 등

○ 개발 계획 단면도



(입체계획 단면도)

- 라데팡스지구의 건설은 1958년에 설립된 라데팡스개발공사(EPAD)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사업방식은 기반정비까지를 EPAD에서 시행하고 각각의 건물은 차지권(借地權)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건설하는 것으로서 민,관 합동에 의함
- 각 지구에 대한 세부적 토지이용계획은 평면적인 분할개념에서 탈피, 입체적 구조물에 의한 도시설계적 기법을 도입하여 인공지반에 의한 다층구조로 도로, 지하철, 철도, 주차장 등 모든 교통 관련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그 위는 오픈스페이스 및 건축물 여유 공간을 조성함.
- 이와 같은 복층구조는 교통효율의 극대화, 파리의 전통인 역사성과 예술성의 강조, 공간 활용도 제고, 개발비용절감 등을 창출하였음.



(주변지역과 어울어진 조형물)

- 보행자 동선 완전분리로 안전한 보행활동 공간을 제공(보행자 데크 : 25만m²)하고 관광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 다니고 지상통행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없는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도시 및 입체도시를 구현함.



인공지반 하부 지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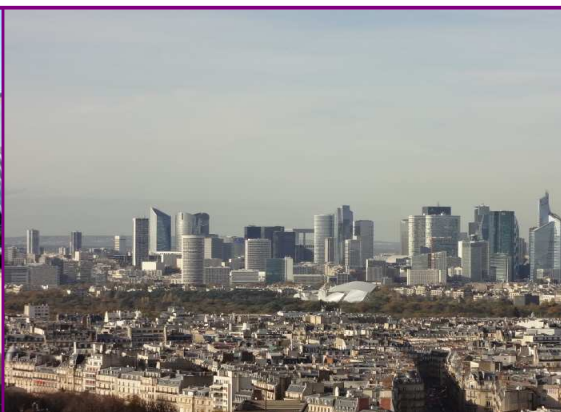


지하 자동차 정류장

○ 라데팡스 방문 사진



신 게선문 앞



에펠탑에서 바라본 라데팡스

④ 프랑스 노인주거협회사설 (AREPA)

① AREPA 일반 개요

- 공식명칭 : AREPA (Association des residences pour Personnes Agees)
- 홈페이지 : <http://www.arepa.org>
- 주 소 : 60, rue Etienne Dolet-92245 Malakoff cedex
- 대 표 자 : Michel Chatot
- 면 담 자 : Thiery Hannedoube 원장(directer)
- 현 황
 - 프랑스 노인주거협회는 프랑스 사회복지국 산하의 기관으로서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산하에 69개 노인 관련 기관에서 약 4,400명의 노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약 1,4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 산하 기관소개 : 42개소
 -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와 근교에 위치한 42개소의 노인요양소에서 약 2,400명의 자력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노인 전문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 노인 전문 아파트는 노인들의 체력 및 생활 습관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는 건물로서 AREPA가 공동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에 의해 데이케어 서비스 및 간호 서비스, 홈 헬프 서비스를 받고 있다.
 - 전문 의료서비스 시설을 갖춘 요양원 : 27개소
 - 2,250개소 가정을 방문하는 500여명의 홈헬퍼 서비스
 - 일부 노인주거 복지시설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 및 장애를 가진 노인을 위한 안전한 생활용품도 제공.

② Les Terrasses de Meudon 시설 및 운영 개요

- 소재지 : 프랑스 파리
- 시설기능 : 노인주거복지시설
- 설립년도 : 1971년
- 운영방식 : 프랑스 노인주거협회 직영기관
- 개인별 시설 이용료 : 1일 98유로 ~ 116유로
 - 연금에 의해 개인 지급 및 국가 보조
 - 부대시설 이용사항등에 따라 비용의 차등
- 수용인원 : 60명 (남 10명, 여 50명)
 - 정신질환, 치매환자, 재가노인 봉사과견, 수용환자 등
 - 초고령 103세, 최연소 73세, 평균 나이 92세
- 종사자 인원 : 총40명
 - 원장 1명, 의사 1명.
 - 전문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18명.
 - 기타 사무원, 청소, 주방 종사자 등 15명
- 운영분야
 - 정신병 환자 : 20bed
 - 치매환자 : 8bed
 - 주택과 병동 겸용 : 32bed
- 운영형태
 - 환자 1인당 1실의 병실 배정 (음향 및 무선호출장치 완비)
 - 시설내 전시스템의 기계화 및 자동화 운영
 - 수용인원의 연령별 분포현황
(90세이상 50%, 80대 30%, 79세이하 20%)

※ 특이사항

- 시설이 주간보호시설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 개인의 사회보장을 지나치게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음.
- 프랑스의 노인복지 미래방향 : 시설보호는 재정부담이 점차 가중되어 국가적 재정의 과부담으로 작용함으로 재가복지 형태의 방식으로 점차 전환 시도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장방문 사진



시설장 브리핑 및 면담



시설 견학 및 설명



시설 앞 기념촬영



시설 견학 및 설명

■ 이탈리아(Italy)

□ 이탈리아 일반현황

- 수도 : 로마(Rome)
- 인구 : 약 6,169만명
- 면적 : 301,332km² (한반도 1.3배)
- 언어 : 이탈리아어
- 지역특성
 - ▶ 지중해성 기후
 - ▶ 세계문화유산 전체의 64% 소유
 - ▶ 기독교 인구가 80.%로 다수
 -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 1인당 GNP : 32,000달러



⑤ 베네치아 운하

① 베네치아 일반 현황

-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과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자 15세기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우던 곳으로 약 150만개의 말뚝위에 세워졌으며 118개의 섬과 그 섬들을 연결하는 170여개 운하와 400여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물의 도시이다.
-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 사이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걸기에도 빠듯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는데 자동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곤돌라와 수상버스가 교통수단을 대신하고 있다. 그중 곤돌라는 관광수단으로써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명물이다.

-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명소인 산마르코 광장은 길이 175m, 폭 80m의 거대한 광장이다.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이 혼재된 외관 또한 아름답다. 나폴레옹은 이곳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세계3대 축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우아한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매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 전 10일 동안 열린다.
- 매년 9월 첫째주 일요일에 막이 오르는 곤돌라 축제도 볼거리가 가득하다. 전통의상에 독특한 선박을 타고 벌이는 퍼레이드와 곤돌라 경주대회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 베네치아는 습지 위에 나무를 박고 흙을 채워 조성하였으며 9세기경부터 도시를 형성함. 14~15세기 초에 해상무역국가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하였다
- 육지로 조성된 곳에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고 판매하는 개수가 정해서 있어 신규로 늘릴 수가 없다.
- 수상시장은 이곳 밖에 없으며, 신선한 야채와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음



② 베네치아 운하

- 포강과 아드리아 해가 만나는 베네치아는 아주 독특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북쪽은 포강에서 내려온 모래와 흙이 쌓여 삼각주가 형성되었고, 남쪽은 아드리아 해에서 밀려드는 바닷물의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엄청나게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 베네치아 운하의 시작은 토르첼로 섬이다. 5세기 중반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북동쪽에 살던 훈족이 현재 베네치아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 지역을 침입하였다. 훈족을 피해 사람들은 비교적 갯벌이 적고 땅이 단단했던 토르첼로 섬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이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섬들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고, 6세기 말에는 레알토 섬을 비롯하여 12개 섬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베네치아는 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베네치아 운하는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여러 도시들과 무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베네치아는 보다 커다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와 물건을 보관할 편리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은 앞 다투어 섬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거대한 나무 기둥을 세우고 항만 시설과 창고, 주택, 사무실 등을 건설했다. 이런 작업은 근대까지 이어져, 자연섬과 인공섬을 합하여 모두 118개의 섬을 가진 거대한 물의 도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 베네치아 운하 사진



베네치아 운하



베네치아 항공사진

③ 베네치아 운하와 경인(운하)아라뱃길 비교

- 관광운하의 벤치마킹 대상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다.
이탈리아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 한반도와 아주 유사한 비교 대상국이다. 이탈리아는 한반도의 1.3배 정도의 면적으로 한반도와 같이 세로로 긴 장화모양의 3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다.
- 베네치아 곳곳에 도로처럼 연결된 170여개의 운하가 있는 베네치아는 1000년의 역사와 함께 그 전통을 간직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운하의 도시다.
- 1000년의 베네치아가 역사속에서 이룩한 전통적인 가치와 몇년만에 조성된 경인아라뱃길을 관광운하로의 단순비교는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된다.
- 따라서, 물류혁명의 계기를 일으키겠다고 조성한 경인아라뱃길과 베네치아의 관광운하 사례와 접목한다는 것이 어찌면 어불성설 일수도 있을 것이다. 3면이 바다인 이탈리아도 운하 물동량은 1%도

안된다고 한다. 반도국가인 이태리는 육로운송을 선호한다.

특히 한국보다 철도 연장선만 하더라도 4배에 이른다고 한다.

- 결론적으로, 경인 아라뱃길은 물류 운하로서의 역할은 극히 힘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경인아라뱃길이 자연친화적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아직 관광 운하로서의 개발의 여지는 많다고 본다.

- 우리 서구의 정서진 해넘이 축제,, 녹청자도요지, 아시아 주경기장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볼 것을 제안한다.

물론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⑥ 이탈리아 협동조합 (IPERCOOP)

①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운영 현황

1. 협동조합 역사

-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시작 : 19세기 후반
(1856년 자발적 연합조직으로 시작)
- 상법 공포를 통해 발전적 기반 마련(1883, 1인1표 원칙에 기반)
* 현재는 헌법 제 45조에 규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음
- 1886년 밀라노에서 제 1회 이탈리아 협동조합 대회 개최
(248개 협동조합)
- 1893년 명칭이 협동조합 전국연맹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협동조합 조직 : 5개 전국 연합조직이 존재 (법적 지위 있음)

- AGCI(자유주의 협동조합 연합체)
- CONFCOOPERATIVE(카톨릭계-소점포 프랜차이징 우세)
- LEGACOOP(대규모화, 보험 및 생협분야 우세)
- UNCI
- UNICOOP

* AGCI, CONFCOOPERATIVE, LEGACOOP는 2011년 1월 총연맹을 결성하였음.

* COOP 총 연맹(본부) 사무실은 볼로냐(Bologna)에 있음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수는 총 5만개에 이르며, 약 1백 4만명의 종업원이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 소속단체	협 동 조합수	매 출 액 (10억유로)	회원수 (명)	직원수 (명)
LEGACOOP	15,200	46	7,200,000	396,000
CONFCOOPERA TIVE	19,000	43	3,000,000	427,000
AGCI	5,500	5.4	264,000	70,000
UNCI	7,825	3	558,000	129,000
UNICOOP	1,910	0.3	15,000	20,000
Total	49,435	107.7	11,037,000	1,042,000

3. 이탈리아 협동조합 분류 및 개요

○ 코프 아드리아티카 (coop adriatica)

- 지역 협동조합마트. 값이 싸고 안전한,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인지, 공정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인지도 면밀하게 따진다. 볼로냐 인근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생산한 야채, 과일들을 보여주며 판매하기도 한다.

○ 키친 코프 (kitchen coop)

- 홍보, 기획 서비스 협동 조합. 다양한 인쇄 홍보물을 만들고 그 외에 광고, 프로모션, 이벤트, 웹사이트 제작도 진행한다.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셈이다.

○ 세탐 (CETAM)

- 앰블런스 협동 조합. 응급구조사들이 만든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수익 방식은 앰블런스의 기본 출동비와 이동거리를 산출해 환자들이 지불한다. 하지만 정부나 보험회사가 거의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실제 비용은 크지 않다.

○ 레가코프 볼로냐 (Lega Coop Bologna)

-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맹 볼로냐 지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집이 부족하면 집을 건축하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한 사람에게는 물건 가격을 할인해주고 노숙자 협동조합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한다.

○ 라 바라카 (La Baracca)

- 어린이 연극 협동조합. 보통 극단에서는 배우는 연기만, 감독은 감독만을 도맡아 하지만 이 조합에서는 모든 것을 같이 한다. 역할은 정해져 있지만 같이 해야만 한다. 극본이 나오면 감독이 역할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감독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없다.

○ 코프 라 스트라다 (Coop La Strada)

- 노숙인 자활 협동조합. 이 조합이 수행하는 활동중 대표적인 하나는 노숙인 자활 쉼터의 운영이다. 이 쉼터에는 사회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주거 불명자들이 입소할 수 있다.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 무리 (Murri)

- 주택건설시행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제공한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50유로를 출자금으로 내면 누구나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무리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골라 예약할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후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 리베라 테라 (Libera Terra)

- 몰수 마피아농지 유기농업협동조합 컨소시엄. 마피아로부터 해방된 땅을 정부가 농민들에게 빌려줘 유기농 농사를 짓도록 돕는다.
그 땅의 농부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유기농 제품에 리베라 테라라는 브랜드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 암바시아토리 (Ambasciatori)

- 도서협동조합과 유기농산물유통업체의 복합. 도서 협동조합인 리브레리에 코프와 슬로푸드를 표방하며 전통 방식의 제법으로 만든 친환경 식재료를 취급하는 이탈리아 공동으로 운영한다. 도시에서 구하기 힘든 지역 특산물과 친환경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으며, 조합원 할인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색다른 문화공간이다.

○ 코메타

- 농민협동조합, 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유통 과정의 비정상적인 마진율을 막기 위한 조합.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저장 창고를 만들고 경영인을 고용해 수익률을 높였다.

○ 이페르콥 (ipercoop)

- 대형마트. 농산물, 식료품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공산품 등 국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있다. 제품은 조합원이 만들고 소비한다. 조합원에게는 각종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연말에는 이윤 배당도 받는다. 작은 생산업체와 상점이 협동해서 대형 매장을 세워 성공했다.

○ 그라나콜로

- 낙농 협동조합. 우유와 요구르트 시장 점유율 1, 2위. 소가 위생적인 물을 먹는지부터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기로 유명하다. 수익의 일부를 아프리카 농민 돕기에 사용한다.

○ 에코 폴리스

- 지적 장애인이 참여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조합.

○ 프로세코 (Prosecco)

- 와인 조합회사. 양조 과정이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 알체네로 (Alce nero)

- 유기 농산물을 다루는 협동조합. 도농 직거래 방식으로는 이탈리아 최초이다. 유기농을 연구하는 곳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② 이페르콥 협동조합 [Ipercoop](방문 협동조합)

○ 설립년도 : 1957년

○ 종업원수 : 23,813명

○ 조합원수 : 212,000명

○ 매출액 : 8,151백만유로(11.8조원)

○ 기관현황

- 이탈리아 107개 농업 및 식품 관련 농협과 협동조합 기업을 대표하는 조직
- 분야별 회원 조합수 비중은 농업 서비스 부문14%, 과일·채소·화훼 부문 11%, 육류부문11%, 낙농부문9%, 와인부문8%, 오일 부문 7% 등으로 구성됨
- 조합원은 생산전담, 조합은 컨설팅, 지도, 출하이후 제조 판매 등을 수행, 조합원의 조합 출하 비율은 조합마다 틀리며, 사전에 약정함

○ 주요 내용

- 모든 이탈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농업식품 부문과 농촌 개발-생산, 가공, 유통, 기술서비스와 장비 및 삼림의 공급 등이 주요 활동 분야임
- 본 협동조합은 현행 유럽모델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주요 경제지침 : 성장과 연대, 회원, 소비자와 환경의 보호추진
- 본 협동조합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음
 - . 적절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협동조합의 합작과 통합
 - . 유럽 연합내 협동조합과의 합작
 - . 국제화 전략
 - . 제품의 품질과 기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 추진
 - . 농업업체와 농촌 지역의 다각화된 개발 추진
- 제품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보증 서비스 제공
- 영세(개인)사업자의 판매량이나 수입량이 적을 경우 조합의 적립금을 풀어서 지원

□ 협동조합 현장방문 사진



ipercoop 건물 전경



이페르코프 매장앞 기념촬영



관계자 프리핑 및 연담



로마시내 COOP 매장 전경

Ⅲ

연구과제 및 검토의견

과제 1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제도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CNDP는 사업비가 3,350만 유로 (약 525억원) 이상 환경 및 국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CNDP는 대중 참여를 통한 집단적의사의 공론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CNDP의 최종의견은 권고사항 일 뿐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이 아니며, 권고사항의 수용 여부는 사업자가 최종 결정 ○ CNDP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등 총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소정의 보수를 받음.
우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정부 (기획재정부)는 현재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시행중임. ○ 지자체에서도 개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토론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도입 적용할 경우 갈등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본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치권 및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권과 행정부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함

과제 2	벨리브 자전거 시스템 운영사례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완비됨. ○ 20,000대 이상 공공자전거 및 1,450여개의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 공간 확보, ○ 요금 : 30분간 무료, 1시간 1유로, 1년간 29유로. ○ 연회원 245,000명 (파리 시민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최고 200,000회 운행, 일평균 75,000회 이용 - 연간 이용율 68% 증가(고용창출 400명:유지관리)
우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전무한 상태임 ○ 일부 지하철역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으나 관리 부실 ○ 자전거 도로 관리부실로 기능 미흡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자전거 전용 횡단로,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통한 승용차 수요 억제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자전거 전용도로망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관내 도시 철도 2호선역과 연계 방안 강구

【관련사진】



공공자전거(Velib) 스테이션



세느강변의 자전거 전용도로

과제 3	라데팡스 도시개발 사례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상업, 주거, 공원이 함께하는 복합 계획도시로 많은 나라의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고 있음 ○ 보행로와 차로가 분리된 이중판형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에는 자동차 및 주차장이 없으며, 모든 차량은 지하(1~4층)를 통하여 시내를 지나게 됨 ○ 다층구조의 입체교통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1층 : 고속도로, 지하2층 : 지하철 지하3층 : 국철, 지하4층 : 지하 기반시설 ○ 계획에서 완료 단계까지 30여년이 소요됨
우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민원충돌 및 졸속개발 ○ 개발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사전교감이 없이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발 ○ 지역개발이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의 진행에 앞서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공 토론을 통하여 이상적인 개발방안 마련 ○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검증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 ○ 사람중심의 개발에 될 수 있도록 추진

【관련사진】



파리 역사축과 일체화된 사업지구



라데팡스 지구 입체 도로망

과제 4	프랑스 노인복지정책 사례
운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함 - 노인에 대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소득의 격차 없이 획일적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직영 또는 복지 재단이나 협회에서 위탁 운영 ○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 및 지나친 복지제도가 국가 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제도가 아직은 미약하여 빈곤층 노인이 많고, 거동불편 노인의 시설입소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복지정책시행에 있어 국가의존도가 높아 지자체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호 중심에서 방문보호 등 재가복지시설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며,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인복지 활성화 정책을 구축하여야 할 시기임.

【관련사진】



AREPA 노인주거복지시설 견학



AREPA 노인주거복지시설 견학

과제 5	베네치아 운하 사례
운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0만개의 말뚝위에 세워졌으며 118개의 섬과 그 섬들을 연결하는 170여개 운하와 400여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물의 도시임 ○ 베네치아 운하는 1000년의 역사와 함께 전통을 간직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운하인 만큼 관광 운하로서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음 ○ 교통수단으로 수상택시, 곤돌라 등을 이용하며, 수상재래 시장에서는 신선한 수산물과 야채등을 판매하고 있음.
우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적으로 몇년만에 조성된 경인(운하) 아라뱃길은 물류 및 관광운하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물류 및 관광 모두 재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의 정서진 축제, 녹청자 도요지, 아시아 주경기장 개발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 운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관련사진】



베네치아 운하 전경



경인아라뱃길 전경

과제 6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영 사례
운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수는 총 5만개에 이르며, 약 1백 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5개 전국 연합조직이 존재 (법적지위 있음) ○ COOP 총연맹(본부) 사무실은 볼로냐(Bologna)에 위치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우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은 활성화 되고 있으나, 지원시스템 부재, 다양하지 못한 영업활동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미약한 실정임.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방안 연구 도입이 필요함, ○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영업 활동이 필요함. ○ 협동조합간 연대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달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함.

【관련사진】



로마 시내 COOP (소형 마켓)전경



이탈리아 COOP (대형 마켓)전경

IV

시사점 및 향후과제 등



CNDP 도입가능성 및 접목방안

□ 긍정적 측면

- 우리나라 정부(기획재정부)는 현재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행 중으로, 공공토론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도입 적용할 경우 갈등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 CNDP의 심의대상사업은 **3,350만 유로(약 525억원)**에서 **1억 5천만 유로(약 2,250억원)**를 초과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형식화되어 갈등예방효과가 미미한 (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공공토론을 적용한다면 갈등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부정적 측면

-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본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치권 및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부의 지지가 선행되어야 함
- 정책집행 속도의 상대적 저하가 우려되고, 민·관 협의를 토대로 하는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에 대해 행정부의 공감대 필요함.



공공자전거(Velib) 시스템 접목방안

-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5E, 즉, 시설(Engineering), 교육(Education), 지원(Encouragement), 제도(Enforcement), 평가(Evaluation)분야로 구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시(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특히,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을 감안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신호등, 표지판, 보관소 등 인프라 구축
- **도로(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 주요 간선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 ⇒ 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를 연석이나 단차를 두어 분리
 - ⇒ 상호 간섭을 최대한 억제(안전성 확보), 배수 원활 도로
 - ⇒ 진출입로가 많은 간선도로 자전거 중앙차로 검토(주행성)
 - 도로 특성에 맞는 자전거 전용도로
 - ⇒ 공원, 녹지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전용교량) 설치
 - ⇒ 통행량(자전거, 차량 등) 변화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 **안전과 편리성을 감안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 도로 정온화 방법 및 자연스럽게 버스 베이(bus-bay) 처리
 - 자전거 도로(교차로 등)의 시인성 확보 방안
 -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전용 신호등, 교차로 처리 등

○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시설

- 지하철, 버스 등 자전거 탑승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 특히, 우리시 실정에 맞는 **Bike & Ride**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역에 Parking 하고 대중교통수단 사람만 탑승), 그리고

Ride & Bike (대중교통을 이용 후 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 까지 이동) 시책을 적극 펼치고

⇒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이 현재 기본계획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자전거 대수와 대여소(Station)수 등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 전문가와 시범 사업시행(시기, 방법, 장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으로 활성화 촉진 필요

○ 우리시(구)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및 지침 조기 재정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행

-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기준을 조기 마련 필요

⇒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을 반영한 인프라 구축 기반

○ 시민의식 전환 및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

- 자전거가 레저용이 아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 변화

⇒ 승용차 통행 억제를 위한 강력한 교통정책 시행

- 어린이, 학생, 주부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필요

⇒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실습장) 등 신설

○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 구(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 후 활성화 사업은 시민단체 시행

⇒ 인천을 대표하는 체계적 포괄적 자전거 시민단체 육성

※ 초기단계에서 시의 과감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 추진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필요



라데팡스 (La Defense) 시사점

- 루원시티(가정지구 도시재생사업) 개발사업의 모델이기도한 라데팡스 지구 시찰을 마치며 이러한 입체복합 신도시를 1960년대에 기획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기존의 역사적인 시설물과 전혀 어울릴것 같지 않은 고층빌딩이 밀집한 신도시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경이로웠음
- 다만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곽순환도로의 최고속도가 70km로서 급격한 곡선부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아마도 초기 개발시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음)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지하 자동차 정류장의 환기나 조명 시설등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음.
- 상업지구(업무지구,A구역)와 주거지구(B구역)가 분리되어 있어 도시 공동화에 따른 야간에 지하공간 등에 대한 우범지대화로 인하여 파리시민 조차 야간에는 상업지구에 출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함
- 따라서 새롭게 우리구에 조성되는 루원시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세계적인 명품 입체복합도시로서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성을 가미한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로 조성되어져야 할 것임.



프랑스 노인주거협회시설 (AREPA)

①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의 시사점

-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국가체제로서 국가로부터 개인이 지급하는 세금의 비율이 최저 40% 이상이며, 노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은 이미 개인이 지급한 세금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 노인에 대한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 노인들에게 공급되는 재가프로그램, 양로시설, 병원등은 소득의 격차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획일적으로 공급된다.

- 프랑스의 사회주의적 복지제도의 한계성
 -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국가재정에 서서히 부담이 되고 있으며
 - 복지제도의 도입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배세력에 의하여 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지나친 복지제도가 국가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②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적 측면

- 대부분 직영 또는 위탁기관 (시설에서 공급되는 추가 프로그램은 이용자에 한하여 개별 지급)
- 불연재 및 환자 긴급호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 노인기관의 프로그램은 이용자 중심으로 구성
- 화재에 대비 동일건물을 건축, 건물과 건물이 연결 되도록 하여 즉각 이동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건물 경계지점에 화재 차단문을 설치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토록함.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부분이므로 화재시에는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추가설치
- 건축물의 구조 및 양식이 이용자의 가정과 같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

③ 우리나라(지자체)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제언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국가체제부터 다르다.
풍부한 자원과 낮은 인구밀도, 오랜 기간 동안의 제도적 시행착오와 개선을 반복함으로써 오늘날 복지 선진국의 발판이 되었다.
- 우리나라와 같이 빈곤과 학대받는 버려진 노인층이 없고 빈부의 계층성이 희박한 완벽한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되기까지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조세의 저항이 거의 없다는 것도 오늘날 사회주의적 성향의 복지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
-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의 사회복지제도가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많은 제도적 발굴과 시행이 필요하나, 사회전반의 시스템의 변화도 이제 못지 않게 중요한 선결과제라 사료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확립하고 정립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효”사상과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부여를 접목한 우리의 체제에 걸맞는 노인복지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치매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계층을 위하여

- 시설보호 중심 ⇒ 방문보호 중심으로
- 노인 재가복지시설의 단계적 확충지원
 -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 치매노인 전문보호센터 확대
 - 주간보호, 가정방문, 상담, 예방교육 등

2. 서민층 노인, 거동불편노인, 기존 경로당 노인을 위하여

- 경로당 운영비의 단계적 현실화
- 경로당 여가·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속적인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3. 활동이 왕성한 노인중 자원봉사 및 취업을 희망하는 계층을 위하여

-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개발, 년차적 보급
- 재취업 훈련 및 평생학습의 장 제공
- 자립형 노인복지기능 구축, 생산적 노인복지 초석 마련
- 노인지도자 육성, 노인 역할부흥운동 거점화
- 노인전용 건전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4. 노인문화 정체성 확보, 노인문화 정착을 위하여

-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 보급
- 다양한 노인전용 여가시설 확보 : one-stop 서비스 체계구축을 통하여 변화하는 노령층의 수요에 대비한 다각적인 노인복지 활성화 정책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이탈리아 협동조합 (IPERCOOP)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연구 필요

- 관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들에 대한 심층적인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물론 관내 상황과 유럽 실태가 다를 수 있으나 선진국들의 협동조합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내 협동조합들의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협동조합 활동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 필요

- Coop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하나의 큰 생협을 사업효율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자리 매김한 지속 가능성 추구 물품을 확대하고 있음
- 이는 기존 협동조합의 분야에 있어 생존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조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임

○ 협동조합간 연대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관내 협동조합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 및 영업활성화 등의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 체계 마련이 급선무임
- 신규 신용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육성기금 등에 대한 정책적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잉여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임
-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추구에 더하여,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수단이 될수도 있음

■ 참고(수집)자료 목록

연번	자 료 명	발행기관	비고
1	프랑스 CNDP 관련 리후렛 자료	국가공공토론위원회	
2	프랑스 CNDP 관련 간행물 자료	국가공공토론위원회	
3	AREPA 관련 브리핑 자료	AREPA	
4	AREPA 관련 리후렛 자료	AREPA	
5	프랑스 자전거 이용 시설 현황 관련 발표자료	프랑스 자전거 협회	
6	이탈리아 협동조합 관련 브리핑 자료	I PERCOOP	
7	‘국가공론위원회’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8	협동조합도시 볼로냐를 가다	그물코(김태열)	